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87호(구407호) 2009. 4. 5.(격주간)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



전도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시며 친히 본을 보이셨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 2009 전 성도 전도대회'를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71일간 진행하고 있다. 참가상, 개인상, 지역별 및 선교회별 단체상, 특별상이 주어지며 학생, 아동은 별도로 시상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 또한 전도이다.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전도는 주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할 의무가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듯 전도 대상자도 사랑하신다. 각기 다른 환경과 직업 등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의 형편과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때때로 너무 과도하게 권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

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을 나타내고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며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소해드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해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를(단 12:3) 소망한다.



부흥 2009 전 성도 전도대회
기간: 3. 22. ~ 5. 31. (71일간)

해외 뉴스



몽골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3.27. 강사 발저릭 푸름 선교사)

만민 TV '제10회 필리핀 국제 케이블 TV 콘퍼런스 및 박람회' 참가 (3. 27, 28.)

러시아 이젠프스 지역 목회자 세미나
(3. 28, 29. 강사 지웅 선교사)

필리핀 이사벨라, 바타안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3. 29. 강사 배승환 목사, 이선욱 선교사)

일본 오가야마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3. 31. 강사 도끼구니 야스히로 목사)

필리핀 이무스 만민교회 창립예배
(4.1. 강사 김주범 목사)

일본 동경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4.5. 강사 유승길 목사)

국내 뉴스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2. 23.~ 4.5. 인도 이복님 원장)

2009 여선교회 헌신예배
(3. 29.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대구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3. 29. 강사 이미영 목사)

인도 선교사 파송식
(4. 5. 임재봉 전도사)

청주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4. 5. 강사 이희선 목사)

2009 대학·가나안 헌신예배
(4. 5.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마음을 하나로

이따금 사장과 전 직원이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리고 일등 기업으로 발돋움한 감동적인 사례를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임직원 전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현실에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같은 시각으로 바

라보며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어떤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얼마나 선한 향을 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곳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열매로 함께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립보서 2:2)

글 이재록 목사
동아일보 연재 '실로암'에서

2009 부활절 칸타타

주제: 회상(回想)
일시: 4월 10일, 금요일 저녁 2부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우리는 구원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5)

당회장 이재록 목사

장미 향수 원액 중에 가장 향기로운 것은 불가리아 발칸 산맥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발칸 산맥은 장미가 살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추운 곳이며 장미가 채취되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이라고 합니다. 장미로서는 가장 춥고 힘든 시간에 가장 강한 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장미향의 최고 원액이 발칸의 장미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액은 바로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역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으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향수를 제조할 때 원액은 조금만 섞어도 좋은 향이 납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의 향기는 겸손과 섬김의 향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온갖 병든 자를 치료하고, 소경, 농아, 절뚝발이, 귀신들린 자 등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권능을 체험하고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리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권능의 역사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요 14:11).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굉장한 권세와 위엄이 느껴질 것이다'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적 권세와 위엄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낀 것은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28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나오므로 때론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지요.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의 향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켰습니다. 곧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그들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야 합니다. 최고의 겸손과 섬김을 보이신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과 섬김의 향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로나 다듬어진 교양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겸손과 섬김의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야 내가 전하는 복음도 잘 심길 수 있지요.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쉽게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내면 직장 등 사회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게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니 오히려 존중과 섬김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 공의이지요.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친구, 이웃이나 동료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 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 대꾸합니다. 이는 내 마음을 상대보다 높은 데 두었기 까닭이며, 그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부딪히고 다툼이 되기도 하지요. 반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등이

런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에게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말 못하는 아기라도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맞춰 줍니다. 갓난아기는 표현하는 소리가 한정되어 있지요. 하지만 엄마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배고프다는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심심하니까 같이 놀아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대충 알지요. 이는 엄마가 아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자기 주장을 펴지 않으며, 엄마 대접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오직 섬기려고만 합니다.

이같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에게 섬기려고만 한다면 상대가 불평하고 투정하며 심지어 화를 내어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이 부딪혔을 상황에서도 포근히 감싸 안는 여러분으로 인해 가족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어린 가족을 어머니와 같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으로 인해 그 마음에 반드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분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힘을 주셨지요. 이러한 예수님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전에 주를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고 용서하셨으며, 오히려 사도로 삼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녹인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 온전한 희생을 하신 주님 사랑이 감사해 많은 눈물을 흘렸지요. 이러한 진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낍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남이 칭찬

받고 잘될 때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랑,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향을 내는 여러분을 통해 상대도 감동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랑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으며 단단히 굳어진 마음도 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사랑의 향을 내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육적 조건 때문에 받는 사랑은 헛된 것입니다. 이는 조건이 바뀌거나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내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함없는 참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영혼이 사랑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악이 없는 선한 마음, 욕이 없는 영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면 반드시 사랑을 받습니다.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한 향을 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지요. 그리고 그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주게 됩니다. 그 영혼이 지극히 사랑스럽게 때문에 그의 육에 속한 것도 소중하게 아껴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며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친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도 육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곧고 변개함이 없으며 배신할 마음이 없는 정직한 사람, 세상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연단해서 그 때를 벗겨내면 아름다운 중심으로 나올 사람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향, 사랑의 향은 매우 진해 2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감동스러운 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믿음의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행함을 본받아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인만민

MANMIN IN THE WORLD

이천 년 전 죄인된 인류를 위해 주님이 흘리신 순결하고 거룩한 보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사는 세상 모든 인류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며,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알코올 중독의 늪에서 건져 주신 주님



기타무라 성도는 본인의 의지로 헤어날 수 없던 알코올 중독의 늪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우상 숭배를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기타무라 스스무 **일본**
(64세)

2007년 5월, 이웃집에 갔던 아내가 마이즈루 만민교회 김건태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뒤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교회 내장 공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제게 도와달라고 하셨지요. 제가 오랫동안 토목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쁨으로 교회 내장 공사를 도와드렸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면서 주일이 나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집에 방문해 교제를 나눌 때는 기쁨이 넘쳤지요.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늘에 예쁜 원형 무지개가 나타나 더욱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1월 22일, 차에서 내리면서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져 입원했습니다.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뼈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해 면역력을 키운 다음에야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그것을 간호사에게 들켜 퇴원 조치를 당했지요. 그 뒤, 몸이 더욱 쇠약해져 술을 먹지 않기로 약속하고 재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어느덧 4개월이 흘렀습니다.

2008년 5월말, 아내는 제 사진을 가지고 당회장님께 기도받기 위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갔습니다. 당회장님은 두 번에 걸쳐 기도해 주셨지요. 그 후 목사님도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가실 때마다 저를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몸이 좋아져 그 해 7월에 퇴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입원 생활로 왜 빨리 낫지 않을까 했지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감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제 의지로 술을 끊을 수 없으니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년간 몸에 밴 술독이 빠져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마시고 싶던 술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평소 저는 술을 좋아해 일을 할때에도 항상 여러 잔을 마시고 해야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더욱 심해져 술 없이는 안정을 잃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지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일할 때에 술에 취해 자재 적치소 쓰레기 소각장 불 속으로 거꾸러져 큰 부상과 화상을 입기도 하고, 넘어져 가슴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고 아내가 물을 때면 “내가 마시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마시게 해!”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제 속에서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김건태 담임 목사님은 심방을 오셔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된 삶을 산다고 권면하시면서 손수건 기도(행 19:11, 12)를 해주셨지요.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아내도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열심이어서 재앙과 질병, 집안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지요. 저희 부부는 집에 있는 불단을 태우고 대신 성경과 십자가를 놓아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독거미에 물린 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베아트리스 구띠에레스(42세)

페루

매 주일 일찍 교회에 나와 성전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주님 사랑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지요.

작년에 엔라세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고 페루 만민교회에 등록한 뒤, 제가 사는 벤파니아 지역에 성도수가 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얼마 전 하나님 은혜로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지요.

2009년 1월 22일 아침 8시 30분경, 벽에 걸여 두었던 반바지를 내려 입었는데 순간 뱀가에 물린 듯 오른쪽 넓적다리가 따끔했습니다. 약간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나 귀에 뾰루지가 딱 누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지속할 수가 없었지요. 물린 주변뿐 아니라 머리와 다리, 눈두덩까지 가렵고 부어올랐으며 전신은 두드러진 붉은 반점들로 뒤덮였습니다.

오전 10시경, 장정연 목사님께 연락해 전화로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되는 통증과 구토, 어지럼

증으로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늘 당회장님을 통한 권능의 역사를 보았고 그동안 손수건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왔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경, 목사님이 전화로 제 몸 상태를 묻고 다시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통증이 가라앉고 마음이 평안해졌지요.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도’ 설교 DVD를 통해 당회장님 말씀을 듣고 ‘환자기도’를 받자 온몸에 퍼졌던 붉은 반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경, 목사님께서 다시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고 오후 5시경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매우 건강하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페루에서는 독거미에 물려 사망하는 일이 있는데 심장에까지 그 독소가 퍼지면 몇 시간 안에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샐러리맨의 삶에 **활짝** 피어난

'인생 행복이야기'

김중을 피택 장로 (구미만민교회, TK케미컬 공무팀 차장)

작년 12월, 나는 영예로운 장로 직임을 받았다.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 불교신자였던 어머니께서 사월 초파일이면 절에 가족 이름으로 등을 달곤 하신 기억 때문에 여지없이 나의 종교는 불교였다. 그런 내가 장로가 되다니 하나님 사랑과 은혜는 실로 크고 놀랍다.

버거운 육아 문제로 우울증에 걸린 아내

1994년,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열 달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노심초사였다.

“주님! 저희 부부에게 아기를 주세요. 저희에게 꼭 필요하답니다.”

이렇듯 매일 교회에 나가 기도하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다음해 10월, 고대하던 쌍둥이 태영이와 태영이의 출생은 우리 부부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아이들은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많고 예민해서 잠을 깊게 자질 못했다. 낮과 밤을 뒤바꿔 자는 데다가 툭하면 칭얼대기 일쑤였다. 아내는 밤새 쌍둥이와 실랑이하다가 동틀 무렵 잠이 들고 낮에 잠깐 눈을 붙여야 했다.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다. 게다가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아내는 웃음이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니 대화도 단절되어 갔다. 급기야 아내가 멍하니 앉아 있거나 혼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말로만 듣던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쁜 직장 생활로 아내에게 마음 써 줄 여유가 없었다. 집 안 살림은 엉망이었고, 나도 같이 예민해지면서 행복은 온데간데없었다.

치료받아 변화 된 아내의 모습에 감명받아

그런데 1997년 어느 날부턴가 아내 얼굴에 미소가 되살아나고 말씨가 사근사근해졌다. 심지어 찬송가를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예전과 달리 집 안도 깔끔하게 청소돼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내 눈이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요즘 구미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껴요.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는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을 치료받아 모든 일이 행복하고 유쾌하다고 했다. 내게도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며 전도했다. 하지만 나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밝아진 아내 모습이 반가운 건 사실이었지만 분명 어머니가 아시면 야단이 날 것 같아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할수록 아내는 오히려 나를 더 섬겨 주며 평안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니 내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찌다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 태워 교회에 데려다 줄 때면 아늑하고 평안한 느낌이 들어 교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1998년 8월, 아내의 간청으로 남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나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 당시 장마철이라 비가 줄곧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회장님 교육시간이 되자 수련회 장소 주변에만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주변은 여전히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기계공학을 전공한 나는 ‘1+1=2’ 이고, 보이는 것만을 믿어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내 마음을 두드렸다. 이런 체험은 교회 등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뒤, 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경작 섭리를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다. 농촌에서 자란 덕에 참 자녀를 얻고자 이 땅에 사람을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 마음을 닦은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큰 은혜가 되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임을 깨달은 나는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마디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도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매일 밤 드러질 줄이야! 진정 하나님 은혜다.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넘쳐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오던 내게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2005년 3월 22일, 둘째 태영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다가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뼈가 세 조각이 나서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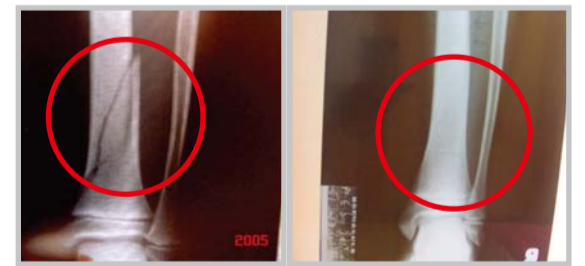
이 일로 우리 부부는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았고, 티격태격하거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에게 상처준 일 등이 떠올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다. 그 후, 태영이의 우측 다리는 수술하지 않고도 조각난 뼈들이 제 자리에 붙어 정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셨다. 일을 하다 보면 급할 땐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곤 했는데 그런 날은 기도 중에 상대의 얼굴을 떠올려 주셨다. ‘상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회개하며 화평을 이뤄왔고 점점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은 나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니 섬세한 하나님 손길에 감사드린다.

부모님은 새대구만민교회 성도가 되었고, 중학생이 된 쌍둥이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랐다. 아내와 나는 기도의 동역자이자 주의 일에 적극 후원자로서 영적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

아내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아들 태영이의 X-ray 검사 결과 >



세 부분으로 골절된 소견 기도받고 뼈가 정상으로 된 소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교교회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221-7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봉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1)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464-4512, 010-3343-153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61)652-8311, 010-3592-952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284-3133, 010-2629-8275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452-7443, 011-608-3037
- 무안만민교회 전북 무안군 해제면 천정리 산153 ☎063)223-9991, 018-202-15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853-0675, 011-671-7191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50-3 ☎033)251-1144, 010-7770-20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766-1535, 010-9108-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637-0271, 010-7733-3731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41-3790, 017-334-7750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64)745-0675, 010-2468-2251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2)556-8517~8, 010-7223-2073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31)485-9143, 017-366-59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2)863-9857, 011-287-7369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569-3835, 010-7720-7770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1)781-9830, 017-355-1928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905-2419, 019-276-101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552-7397, 010-2290-1856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2)489-3766, 016-776-10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32)528-3830, 010-7720-7770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1)202-8480, 010-2213-2073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635-9103, 016-718-7458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840-2906, 019-251-3149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